가족의 양면성

***컴퓨터학과 2013210061 채윤병***

‘오늘도 싸우겠다’라는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쏘아붙이시곤 하셨다. 심한 날엔 때리기도 하셨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아버지는 완전히 취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 말이다. 나는 그 싸움을 닫힌 문 너머로 듣는 일이 많았다.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지만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두 분이 이혼하실 줄 알았다. 내 주위 친구들중에서도 부모님이 이혼했던 아이들이 많았고 또 그냥 내 예상엔 그랬다. 가족과 있는 것이 그 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 대입을 준비하면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고, 그러다 군대에 들어갔다. 군인이라면 다 그렇듯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부터 가족이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묻어놓은 채 하나를 이루며 살고 있다.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더 이상 못 드시고 싸울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나에겐 그 간의 일들이 아직도 머리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나에게 가족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 트라우마를 느낄 때도 있었고 압박감, 의무감에 시달린 적도 많았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욕구도 크지만 반대로 가족으로 돌아와 기대서 피난처 삼고 싶을 때도 많았다. 이러한 양면성은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남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남들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안식을 주는 곳인 가족이 나에게 발전과 한계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도 이 말은 통한다. 우리 사회에 있어 가족은 작은 단위의 발전 집단이다. 다른 어떤 단체도 가족을 대체할 수 없고 단지 가족의 한계를 보완할 뿐이다. 가족은 구성원이 지켜야할 마지막 집단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가 아무리 심화될지라도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집단에서의 한계에 더 고통받을 것이다. 나도 가족의 한계를 느끼며 벗어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가족 밖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일시적이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힘들었지만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너머는 생각할 수 없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에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